
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	2022년 1월 26일(수) 총 2매		
담당 부서	보건환경 연구 원	담 당 자	• 삼산농산물검사소장 주광식 ☎440-5601 • 남촌농수산물검사소장 최은정 ☎440-8514 • 담당자 정승혜 ☎440-8515		
사진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설 성수 농산물 안전망 강화 - 시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집중 검사 - - 도매시장,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14건 대상 검사 -	
--	--

인천광역시는 설을 맞아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하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산물 114건에 대해 잔류농약 집중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검사는 지난 1월 10일부터 20일까지 도매시장, 대형마트, 재래시장 및 온라인 몰에서 판매되는 채소류 85건, 버섯류 19건, 과일류 8건 및 견과종실류 2건 등 채수용·선물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.

검사 결과, 113건은 적합이었으나 도매시장의 대파 1건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됐으며, 부적합품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전국 도매시장 반입이 금지된다.

한편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삼산·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두고 주·야간 상시로 검사하고 있다.

지난해에는 4,636건의 농산물을 검사해 51건의 부적합 농산물을 압류·폐기하고 해당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으며, 올해도 지속적인 잔류농약검사 실시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.

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인천시는 안전한 농산물이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상시 검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, 시민이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다양한 주제로 기획검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.”라고 말했다.

〈붙임〉 제수용·선물용 농산물 사진

	
<p>농산물 도매시장</p>	<p>농산물 경매장 수거</p>